

한국화·서양미술 '특별한 만남'



제7회 광주비엔날레가 열리고 있는 의재미술관에서 외국인들이 도슨트로부터 허백련 화백의 산수화와 바이런 킴의 '고려 청자 유약' 작품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

07 의재미술관, 허백련·비엔날레 작품 함께 전시 08 '전통과 현대' 시공 초월한 공존에 색다른 감동

전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잔잔한 동양화와 과격적인 현대미술이 만나 묘한 울림을 남기고 있다. 남종화의 대가 의재 허백련(1896~1977) 화백의 예술혼을 기리기 위해 지어진 의재미술관에 실험적인 현대미술 작품들이 전시됐다. 이 작품들은 시공간을 초월해 허백련 화백의 작품들과 서로 어울려 색다른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

2008 광주 비엔날레 개막(5일) 후 의재미술관은 하루 평균 80~90명 정도가 찾는 등 관람객들이 평소보다 70%가량 늘어났다. 무등산을 찾은 등산객을 비롯해 민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온 외국인 손님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외국인 관람객들은 전통과 현대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만난 이번 전시에 대해 "전통 문헌에서 느낄 수 있는 단아함과 현대 미술의 과격적인 면모를 한 자리에서 즐길 수 있었다"고 입을 모았다.

"제인" 색선 참여 작가인 프랑수아즈 빈센트씨는 "한국 전통작품인 동양화와 무등산, 풀담, 단청 등 자연 주변환경이 기억에 남는다"며 "프랑스로 돌아가면 한국에 대해 소개하고 싶다"고 전했다.

베네수엘라 출신 작가 엘로이 페리아씨도 "주 전시관은 사람도 많고 복잡했는데 이곳은 조용하고 차분하게 작품을 감상할 수 있어 좋았다"며 "증심사랑 무등산 주변도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외국인 관람객들은 전통과 현대

의 어우러짐이 상징적으로 드러난 곳으로 3층 전시실을 꼽았다. 정체성에 대해 끊임없이 탐구해왔던 한국계 미국인 작가인 바이런 킴의 '고려 청자 유약'과 의재 허백련의 산수화 작품 등 한국의 전통문화를 담고 있지만 발상과 표현 기법에 있어서는 문화적인 차이를 드러내는 작품들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길 위에서" 색선 참여 작가인 파키스탄 출신의 휴마 브라바씨는 "인본주의, 자연친화 사상 등 허백련의 작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많은 의미가 담겨있어 좋았다"며 "또 유화로 한국적인 아름다움을 표현한 바이런 킴의 현대작품과도 잘 어우러져 인상적이었다"고 말했다.

도슨트(전시 해설가)를 맡고 있는 박현미(40)씨는 "만지지 마라"는 말 대신 만져보고 먹어보라는 말에 관람객들이 재미를 느끼는 것 같다"며 "외국인들은 허백련의 작품에 관심을 많이 보였으며, 남종화와 현대 미술 작품을 동시에 볼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이색적인 즐거움을 느끼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이밖에 마리야나 브니모브(베네수엘라)씨가 광주 지역을 돌며 한국 건축 양식을 담아 만든 '초콜릿 Shack(chocolate shack)' 작품은 관람객들로부터 가장 인기가 높았다. 초콜릿으로 지은 집을 만져보고 먹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두 달 동안 전시될 예정인 작품은 관람객들로부터 폭발적인(?) 호응을 얻어 개막 4일째인 9일 지붕, 계단, 벽 일부가 사라진 상태다. 집이 사라지는 과정은 영상작품으로 제작돼 비엔날레 주 전시관에서 상영될 예정이다.

도슨트(전시 해설가)를 맡고 있는 박현미(40)씨는 "만지지 마라"는 말 대신 만져보고 먹어보라는 말에 관람객들이 재미를 느끼는 것 같다"며 "외국인들은 허백련의 작품에 관심을 많이 보였으며, 남종화와 현대 미술 작품을 동시에 볼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이색적인 즐거움을 느끼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광주비엔날레 입장권 버리지 마세요."

"광주비엔날레 입장권 버리지 마세요."
2008 광주비엔날레는 중외공원 내 비엔날레 전시관, 의재미술관, 광주극장, 대인시장 등 5곳에서 열리기 때문에 하루에 전시장들을 다 둘러보기가 힘들다. 이를 위해 재단은 올해부터 비엔날레 입장권을 소지한 관람객은 날짜에 상관없이 전시장별로 나눠서 관람할 수 있는 입장권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단, 비엔날레 주전시관은 1회 입장만 가능하다. 시립미술관 등 4곳은 아무 때나 오는 11월 9일까지 관람할 수 있다.

올해 광주비엔날레의 입장권은 크게 전시장 별로 한차례씩만 입

전시장 5곳 나눠 관람
셔틀버스는 30분 간격
대인시장 입장권 없어

잠이 가능한 보통(성인 1만 2천 원), 특별한인, 단체할인, 가족입장권과 전시 기간 66일 동안 모든 전시장을 마음껏 관람할 수 있는 전기간통용권(성인 3만원)으로 나뉘어져 있다.

보통, 특별한인, 단체할인, 가족 입장권은 전시장별 1회 출입이라는 제한은 있지만 기한이 정해지지 않았다. 가령 구입 첫날은 비엔

날레 전시관을 감상한 뒤 다음날 광주시립미술관을 둘러보고, 일주일 뒤 의재미술관을 무료 입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대인시장은 입장권이 없어도 누구나 관람이 가능하고, 광주극장에서 상영되는 베르너 파스빈더의 14부작 영화 '베를린 알렉산더 광장'도 입장권을 한 번만 구입하면 여러 날 나눠서 볼 수 있다.

전시장 별 이동은 셔틀버스를 이용하면 더욱 편하다. 매일 오전 9시부터 비엔날레 전시관 정문을 출발해 대인시장~광주극장~의재미술관을 오가는 순환버스가 30분 간격으로 운행된다.

/오광특기자 kroh@kwangju.co.kr

연필로 묘사한 女心 서양화가 박소빈 개인전

서양화가 박소빈씨가 오는 23일까지 서울 'T-SPACE'에서 열 번째 개인전을 갖는다.

박씨는 이번 전시에서 용과 여인을 등장시켜 밀도 깊은 사랑을 표현한 신작을 선보인다. 화려한 색채 대신 연필을 사용한 특유의 검은 모노톤과 풍만하게 표현한 여인의 섬세한 묘사가 돋보이는 작품들이다. 연필로 사물을 표현한 뒤 색채를 살짝 곁들여 드로잉의 단조로움도 피했다.

박씨는 목포대 출신으로 조선대 대학원을 졸업했으며 광주, 서울, 뉴욕 등지에서 전시회를 열었고 한국색채학회, 아트그룹 자유로, 에펠드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오광특기자 kroh@kwangju.co.kr



'사랑의 여신'

'무지크 바움 앙상블' 정기연주회 12일 광주문예회관

지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실내악 연주단체 '무지크 바움 앙상블'이 정기연주회를 갖는다. 12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예회관 소극장.

피아니스트 구재항(호신대 교수), 바이올리니스트 박다연(광주시립교향악단 상임단원), 비올리스트 신정문(*), 첼리스트 이지현(스콜피아 앙상블)씨로 구성된 피아노 4중주단인 무지크 바움 앙상블은 지난 2004년 창단 후 슈만 서거 150주년 기념 연주회 등 다양한 레퍼토리로 관객들을 만나왔다.

무지크 바움 앙상블은 이번 연주회에서 베토벤의 '피아노 4중주 내림 마장조 작품번호 16', 브람스의 '피아노 사중주 사단조 작품 번호 25'를 들려준다.

독일어로 '음악나무'를 뜻하는 '무지크 바움'은 음악을 통한 감성의 씨앗이 큰 나무가 되기를 꿈꾸는 단체다. 문의 062-650-1622.

/김미은기자 mekim@

금호음악인상 금호음악스승상 내달 9일까지 접수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은 내달 9일까지 제 5회 금호음악인상과 금호음악스승상 선정을 위한 지원자를 접수한다.

금호음악인상은 뛰어난 기량을 가진 25세 이하 연주자가 대상이고, 금호음악스승상은 그 스승에게 수여된다(약 1천만원)의 상금과 아시아나항공 비즈니스 클래스 탑승권을 5년간 지원받게 되고, 금호음악스승상 수상자에게는 5천달러(약 500만원)와 3년간 아시아나항공 비즈니스 클래스 탑승권이 수여된다.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 홈페이지(www.kumhoarthall.com) 참조. 02-6303-1911.

/연합뉴스

비엔날레 작가 박문중씨 '선술집 풍경' 출간

고단한 퇴근길, 골목 꺾어 들어가면 병어, 조기, 돼지고기 볶음, 꼬막 등 연탄불 한 장으로 온갖 구수한 안주를 굽고 있던 선술집. 겨울 바람에 지친 도시민들의 허한 가슴을 막걸리 한 사발로 넉넉하게 다독여주던 추억 어린 공간이지만, 재개발 등으로 가장 빠르게 사라져버린 도읍 속 풍경이다.

2008 광주비엔날레 '대인시장 복덕방 프로젝트' 참여작가인 박문중(사진)씨가 광주와 화순, 담양에 남아 있는 선술집을 글과 그림으로 담은 '선술집 풍경'을 내었다.

이들 선술집은 산수유 언덕배기, 학동 팔거리, 우산동 말바우시장 등 대부분 구도심의 허름한 골목에 자리 잡고 있었다. 이름도 '개미집' '고흥집' '외간집' '뽕보네' '뽕보네집' 등 소박하지만 아직도 훈기 넘쳐나고 때때로 웃음이 맴돌았다.

저자는 40여 곳의 선술집을 물면서 넓적하게 썰어낸 돼지 목살과 간짜미 회무침 등 술과 안주를 맛깔스럽게 소개했다. 공동 예술의 거리를 드나드는 사람치고 모르는 이 없다는 '영흥식당'은 화가들의 아지트로 그려졌다. 예술계 인사들의 출입이 잦아

밤마다 짧은 예술인들의 '막걸리 토크'이 이어진다는 것이다.

한편 박문중씨는 1990년 한국화의 전향 등 전시회에 참여했고, 이번 광주비엔날레에는 흥어를 소재로 한 '1호-2호-3호-4호' 전시를 대인시장에서 선보이고 있다.

<전라도닷컴·1만3천원>
/오광특기자 kroh@kwangju.co.kr



박문중씨는 1990년 한국화의 전향 등 전시회에 참여했고, 이번 광주비엔날레에는 흥어를 소재로 한 '1호-2호-3호-4호' 전시를 대인시장에서 선보이고 있다.

영화보다 더 재미있는 영화관 www.megabox.co.kr

메가박스

구.관전역사거리 ☞에메1544-0600

1관	신기전 (154)	최고급관
2관	맘마미아 (124)	
3관	다크나이트(154)/20세기소년(124)	
4관	올학교 ET (154)/스타워즈 (전제)	
5관	신기전 (154)	
6관	고사 (154)/영화는영하다(184)	
7관	지구(더빙)(전제)/꽃보다남자 (124)	
8관	미드나잇 미트 트레인 (184)	
9관	방목 데인저러스 (154)	
9관	맘마미아(124)/20세기소년(124)	

• 이프류 주차장 이용시 2시간 30분 무료 (단, 영화 관람객에 한함) : 2시간 30분 초과시 정산요금 부과

—은 가족의 편안한 문화공간—

엔터 시네마

충정로 5가 (전화예약) 228-2700

1관	신기전 (154)	
2관	지구 (전제)	
3관	다크나이트 (154)	
4관	장강7호 (전제)/놈놈놈 (154)	
5관	스타워즈-클론전쟁 (전제)	
6관	고사 (154)/미이라3 (124)	
7관	맘마미아 (124)	

www.entercinema.co.kr
• 넓고 편안한 주차의 주차장 300대 • 금로 살아생전

황포시영 영화시영 • 예매: www.joyco.com / 1588-7941

콜롬버스 시네마

상무점 (상무병원과 이마트 사이) 해남점 (무역화면역점)

1관	고사 (154)/놈놈놈 (154)	
2관	이기야(154)/첫그녀에게 비밀이예요(전제)	
3관	맘마미아 (124)	
4관	맘마미아 (124)	
5관	스타워즈 (전제)/눈에는 눈 (154)	
6관	다크나이트 (154)	
7관	신기전 (154)	
8관	지구(더빙) (전제)/미이라3 (124)	
9관	월드(더빙) (전제)/신기전 (154)	
10관	신기전 (154)	

• 호남 최대 주차장 • 매일실야 상영합니다
콜롬버스 하점 (10개관) 잡화점 상영중
1588-7941
상영시간 별도
-금로 살아생전-

색깔있는 영화선학 • www.cinua.co.kr / 1544-0070

씨너스 전대

북구보건소 건너편 ☞ 511-1000

1관	다크나이트 (154)/올학교 E.T (154)	
2관	맘마미아 (124)	
3관	신기전 (154)/영화는영하다(184)	
4관	스타워즈(전제)/방목데인저러스(154)	
5관	고사 (154)/꽃보다 남자 (124)	
6관	신기전 (154)	
7관	맘마미아(124)/영화는영하다 (184)	

• 매일실야 상영합니다 •
• 무료주차 3시간
• 이동권신사 할인혜택
• 씨너스채 사무원(오전8시-오후11시)
ARS 전화예매 1544-0070

고려시영 고래극동 • www.hamcinema.co.kr / 1588-9120

하미 시네마

진대후문 하미포텍스 ☞ 267-7777

1관	지구 (전제)	
2관	미이라3 (154)/눈에는 눈 (154)	
3관	다크나이트 (154)	
4관	첫 그에게 비밀이예요 (전제)	
5관	좋은놈 나쁜놈 이상한놈 (154)	
6관	고사-피의중간고사 (154)	
7관	스타워즈-클론전쟁 (전제)	
8관	신기전 (154)	
9관	맘마미아 (124)	
10관	신기전 (154)	

• 500여대 넓은 주차장(3시간무료) • 385 매일실야
• 이동권신사 & OK 캐시백 카드 할인 혜택
• 하미 수영장 288-5757 • 하미 북점 282-0825
• 하미 골프장 251-5060 • 하미 당구장

새로운 기쁨 • www.primacinema.com/www.jekinema.co.kr

제일 시네마

충정로 3가 ARS 전화예매 227-1960

1관	신기전 (154)	
2관	올학교 E.T (154)/신기전 (154)	
3관	맘마미아 (124)	
4관	영화는영하다 (184)/고사 (154)	
5관	꽃보다 남자 (124)/지구 (전제)	
6관	20세기소년(124)/다크나이트 (154)	

• 무료주차 3시간 (공주세무서 옆 호남타워주차장)
단, 입장권 구매 고객에 한함
ARS 전화예매 227-1960

